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9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9호

이북의 3대제의, 3대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의 해로 빛내이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 - 주체 91(2002)년 2월 8일

지난 1월 22일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어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소문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6.15공동선언고수이행,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운동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제거 등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또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민전 대변인은 1월 28일자 담화문에서 ≪이북의 이같은 3대호소, 3대제의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발기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민중은 애국애족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민족통일대행진에 총분기하여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며 여기에 조국통일을 향한 민족대행진의 추동력과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이 있다. 당면하여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온갖 반통일 시도들을 단호히 분쇄해 버려야 한다.

당국자들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과의 공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대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각계민중은 사상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 적극 합류하여야 한다.

애국민중은 내외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고 동족압살론인 ≪주적≫론을 철회시켜야 하며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통일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전위당의 향도따라 전국민과 함께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으로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 앞장설 것이다.

전위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하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 - 주체 91(2002)년 2월 8일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2월 3일 모든 국민이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부시가 미국회연두교서에서 이북이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 망언은 대북선전포고와 같다고 지적하며 부시의 서울행각이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전쟁행각,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고 폭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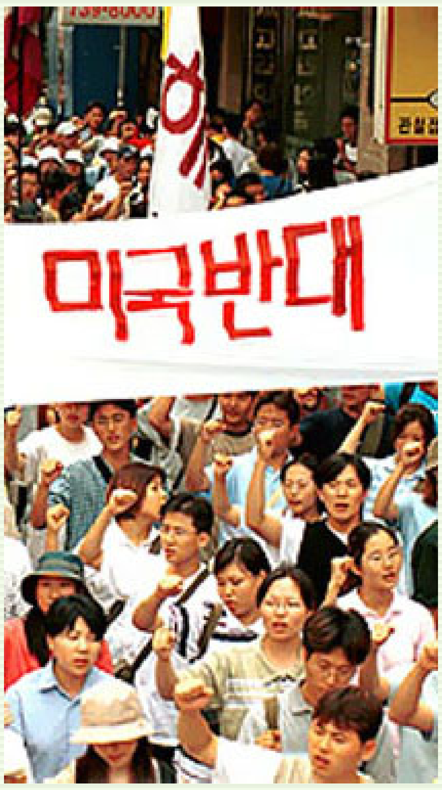
호소문은 이어 전 국민들이 부시의 전쟁행각을 결사배격하고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과 반미반부시투쟁을 밀착시켜 전개할 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전쟁위험의 화근을 제거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긴급하게 발표된 전위당의 호소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심장으로 접수한다.

부시의 연두교서는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이북을 모해압살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발이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전쟁을 유발하려는 작태이다.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위협공갈이며 이북에 대한 침략과 공격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침략과 공격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분단의 원흉이며 이 땅 만악의 근원으로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유린하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국은 전세계가 지탄하는 테러의 왕초국가이며 부시를 비롯한 미국수뇌부는 전쟁과 악마의 대명사이다.

→ (7면으로 이어집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

1 이북의 3대제의, 3대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실천의 해로 빛내이자
1 전위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하자

노작

2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2)

세기와 더불어

4 1장 5절 ≪압록강의 노래≫ (2)

칭송

6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1)
6 그 순간에 벌써
6 **김정일**동지는 영도의 천재이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불멸의 선군영도자국을 더듬으며(2)
8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배격하는 각계민중
8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7일

광고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4. 철학의 대가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년 2월 7일
10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자 (1) - 로동신문사설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아리랑뉴스

12 부시 정권의 오만성과 호전성
12 전쟁광 부시는 더이상 한반도를 위협하지 말라
12 유엔주재 북대사 ≪북-미관계 미국 손에≫
13 조선일보가 바로 ≪악의 축≫
13 부시의 국방비증액 맹공 / 세계가 부쉬폭언을 비난
14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창립
14 금강산 모꼬지, 개강총회때 첫 안건으로

통일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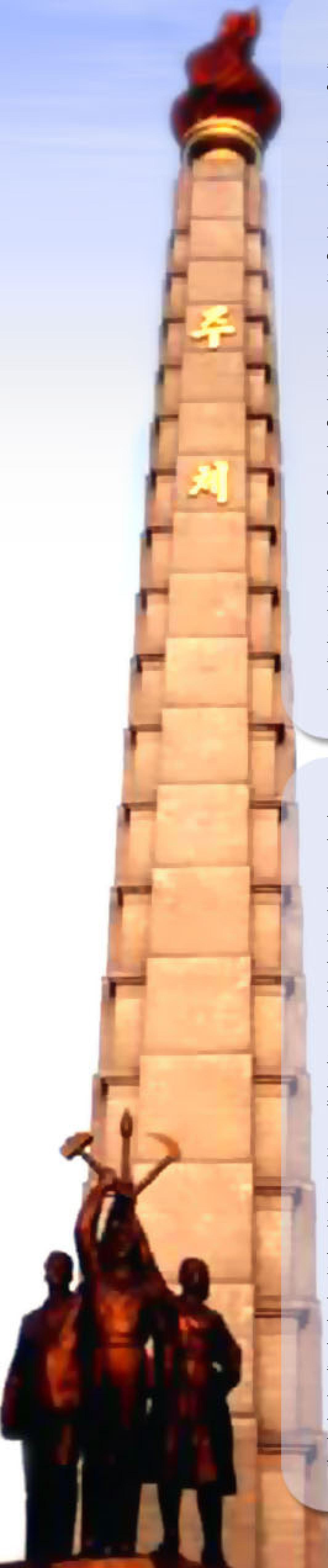
15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1)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2)

주체77(1988)년 9월 15일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체의 심각한 내부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날로 우심해지는 모순으로 하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상품판로가 점점 더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르조아변호론자들까지도 고칠 수 없는 현대자본주의의 고질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 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이 유포되어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고 있으며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어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 부가 늘어날 수록 사람들의 정신생활이 더욱더 빈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가계급은 날로 위태롭게 되어가는 저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회유, 기만하고 매수하는 교활한 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반동적 통치기구를 파쑈화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이것이 바로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풍부한 정신생활을 누리며 정신문화적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풍족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서로 결합되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을 발전시키려면 물질생활이 유족해지는 데 맞게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과 정치생활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사람들이 부패한 물질생활과 돈의 노예로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데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데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정신문화적 발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저들의 정치적 지배권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정치생활발전을 극력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돈과 물건의 노예로 되어가고 있으며 정치적 생명을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없앨 수 없을 뿐 아니라 높아지는 물질생활과 빈궁하여지는 정신문화생활 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 정치생활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다같이 발전시키자면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자본주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배치되게 점점 더 반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 것을 요구하는 인민대중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파멸의 길을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현대제국주의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은 평화와 진보의 성새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으로는 핵무기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날라리 춤을 추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진보적 인민들을 굴복시켜 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제국주의는 위기에 처할수록 그 반동성과 침략성이 강화되고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하는 법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의 표현이 아니라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반동화되어 발악할수록 인민대중은 혁명적으로 각성될 것이며 제국주의의 멸망의 날은 더욱 가까와올 것입니다.

현대제국주의가 임종에 가까와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특히 혁명의 전위부대인 노동계급의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역량을 강화하려면 사회계급 구성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옳게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계급구성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추진됨에 따라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기술노동과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열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들이 숫적으로 근로자대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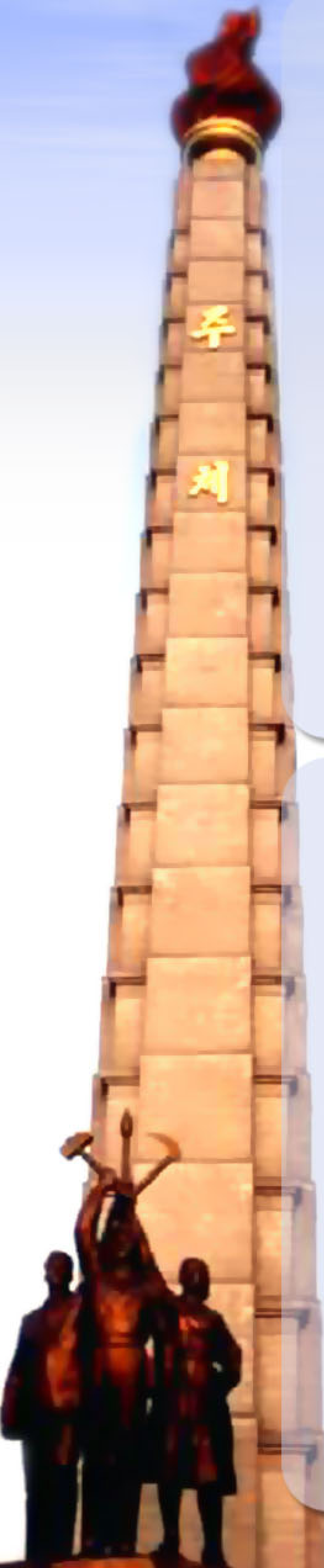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인텔리대열이 늘어가는 것은 합법칙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텔리대열이 급속히 늘어나면 근로자들 속에서 소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혁명적 교양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많은 인텔리들이 부르조아사상과 소부르조아사상에 물젖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나섭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계급구성에서의 이와같은 변화가 공산당, 노동당들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사회주의혁명에 불리한 조건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술노동에 종사는 근로자이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건 그들은 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기술노동과 정신노돛 소유자는 아닙니다.

기술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과 기술문화수준에서나 노동조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자본가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살아나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종래 의미에서의 노동자대중과 새로 늘어난 기술노동과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합하면 자본가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수가 전체 직업주민의 80~9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공산당, 노동당들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사회계급 구성이 변화된 현실에 맞는 공산당, 노동당들이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화하며 쟁취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급도 계급적으로 각성되어야 혁명에 나설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은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동계급은 지난날과 같은 무산계급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계급이 무산계급이 아닌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노동계급도 선행고전가들이 옳을 것이라고는 철쇄밖에 없다고 한 지난날의 무산자들과는 다릅니다. 혁명에 나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무산자인가 유산자인가 하는 데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아와 빈궁에 못이겨서 혁명에 나선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는 것은 자주적 인간의 근본요구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자주성이 짓밟히는 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 혁명투쟁이 있는 법입니다.

해방 전 일본제국주의 통치 밑에서 우리나라 인텔리들도 일반 노동자들에 비하면 높은 대우를 받으며 비교적 유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지 인텔리로서 민족적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반제적인 혁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노동과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비록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는 것만큼 자본주의제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본주의나라 인텔리로서 한때 사회주의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계속 투쟁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사회계급적 처지의 제한성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옳게 교양하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로대중을 혁명화하여 쟁취하는 데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당입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사업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 수 없으며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릴 수 없습니다.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혁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가꾸지 않고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당을 건설하여야 하며 당이 인텔리들을 포함한 광범한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그들을 혁명에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이론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이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변화된 현실에 맞게 혁명이론을 발전시켜야 하며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으며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앞두고 허장성세하며 발악하는 현대제국주의의 정체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혁명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정세를 옳게 평가하고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려면 또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쏘련이 승리한 것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이것은 제국주의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구라파와 아시아에서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새로 출현하여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제로 발전하였으며 오늘 아시아와 구라파,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견인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사회주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발전하여온 과정은 물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 것의 탄생과 승리는 언제나 진통을 겪는 법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일련의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인류역사발전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변혁입니다. 사회주의는 몇천년 동안 쌓이고 쌓인 온갖 역사적 오물을 청산하기 위한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욱이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내외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원래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노동계급 앞에는 무엇보다도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심각한 사회적 변혁을 실현하며 반혁명으로부터 혁명을 수호하는 것이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습니다.

첫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놓고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벌였으며 연이여 제2차 세계대전의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쏘련은 전후에도 제국주의자들의 냉전정책에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봉쇄책동에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세계혁명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일 지원하는 데도 큰 힘을 돌려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정치생활과 사상문화생활 분야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사회주의나라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사회주의나라들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몇백년이 걸려도 도달할 수 없는 경제적,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5. ≪압록강의 노래≫ (2)

공부를 시작한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외할아버지는 내가 볼 5학년 교과서들을 가지고 왔다. 나는 한보따리나 되는 책들을 받아안고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 교과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그런데 ≪국어독본≫이라고 쓴 일본말책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황민화≫하기 위하여 일본말사용을 강요하였다. 강점 첫 시기에 벌써 그들은 관공서와 재판소, 학교들에서 쓰는 공용어는 일본어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조선말을 못쓰게 하였다.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일본말책을 왜 국어책이라고 하는가고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나는 손칼로 ≪국어독본≫이라는 글자들가운데서 나라국자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그자리에 날일자를 써넣었다. ≪국어독본≫이 순식간에 ≪일어독본≫으로 되어버렸다. 일본의 동화정책에 엇서고싶은 저항심리가 나로 하여금 그런 용단을 내리게 하였다.

창덕학교에 며칠간 다녀보니 교실이나 길거리나 놀이터에서 일본말을 하는 아이들이 더러 보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일본말을 배워주기까지 하였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탓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조선말도 영영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일본말을 익히느라고 애쓰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조선사람은 응당 조선말을 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었다.

내가 팔도구에서 조국에 나와 칠골에 간 그날 동리사람들은 시국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 외가집에 모여왔다가 만주에서 몇해동안 살았으면 중국말을 잘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자고 나에게 청을 하였다. 창덕학교 아이들도 중국말을 배워달라고 자꾸 성화를 먹이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제 나라 말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남의 나라 말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매번 거절하군 하였다. 내가 조국에 나와서 중국말을 해본 것은 단 한번뿐이었다. 하루는 둘째외삼촌이 나더러 성안구경을 가자고 하였다. 일에 몰려서 좀처럼 구경이라고는 다니지 않는 분이였지만 그날은 나를 위해 모처럼 통시간을 냈다. 네가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나하고 같이 나가 점심이나 한끼 먹자고 하며 나를 데리고 평양성안으로 들어갔다.

창덕학교

우리는 시내를 한 바퀴 돌고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서평양에 있는 중국료리점에 들리었다. 지금의 봉화산려관이 자리잡고 있은 일대에는 그 당시 중국료리점들이 많았다. 료리점주인들은 매상고를 올리려고 문밖에까지 나와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하면서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아들이였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경쟁적으로 손님들을 끌었다. 우리가 들어간 료리점 주인은 서투른 조선말로 무슨 음식을 잡숫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주인이 알아듣기 쉽게 중국말로 호떡을 두그릇 달라고 하였다. 주인은 눈이 둥그래서 나를 쳐다보더니 혹시 중국학생이 아닌가고 물었다.

나는 중국학생은 아닌데 몇해동안 만주에 가서 산 덕으로 그럭저럭 중국말을 좀 한다고 하면서 중어로 얼마간 대화를 하였다. 료리점주인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중국말에 그처럼 능통한 가고 하면서 몹시 반가와하였다. 만주에서 살다가 온 학생을 만나니 조국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지었다. 그리고는 호떡과 함께 청하지도 않은 음식까지 식탁에 차려놓고 많이 들라고 하였다. 우리는 사양하다못해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었다. 식사를 끝낸 다음 음식값을 치르려고 돈을 내놓았더니 주인은 호떡값조차 받지 않았다.

외삼촌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한턱 내려고 너를 성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도리어 네 덕을 입었구나 하면서 크게 웃었다. 이 소문이 외삼촌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

나는 희망대로 강량욱선생이 담임한 학급에 편입되었다. 내가 칠골에 간 것은 강량욱선생이 숭실학교를 중퇴하고 창덕학교에 취직한지 얼마 안되는 때였다. 선생은 학비를 댈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다.

가난이 오죽 심했으면 선생의 부인(송석정)이 시집을 버리고 한동안 친정에 가있었겠는가. 부인의 부모들이 네가 인덕이 모자라 조강지처는 되지 못할지언정 가난에 진저리가 나서 지아비를 버리다니 그게 될말이냐,

조선사람치고 그만큼 가난하지 않은 집이 몇집이나 된다더냐, 그래, 시집을 가면 금방석에 앉아서 꿀물에 옥밥이라도 말아먹을줄 알았더냐, 일언이폐지하고 당장 돌아가서 사죄하라고 엄하게 질책하여 부인을 시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니 강량욱선생의 가세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긴 설명이 없이도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생의 부인을 ≪숙천아지미≫라고 불렀다. 부인의 고향이 평안남도 숙천이었다. 내가 가면 ≪숙천아지미≫는 매번 비지밥을 해주군 하였다. 그 비지밥이 참으로 별맛이였다.

창덕학교시절 쓰시던 책상

해방직후 나는 강량욱선생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다가 부인과 함께 창덕학교시절의 비지밥을 회상한 적이 있었다.

≪사모님, 나는 지금도 칠골에서 사모님이 해주시던 비지밥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때 그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20여년동안 타향살이를 하느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은 ≪가난때문에 쌀밥 한끼 변변히 대접 못하고 비지밥만 해드렸는데 감사하다고만 하시니 도리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비지밥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그리고는 창덕학교시절에 장군님대접을 소홀히 한 봉창을 해드린다고 하면서 손수 지은 음식들을 차려주었다.

어느해인가 그 부인이 내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백화주≫라는 자작술까지 보내주었다. ≪백화주≫란 백가지 꽃으로 만든 술이라는 뜻이다.

그 운치있는 이름때문에 류다른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나는 가볍게 잔을 들지 못하였다. 쌀밥 한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늘 시장기와 싸우던 부인의 지난날이 눈앞에 삼삼해서 좀처럼 잔을 들어올릴수가 없었다.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나에게는 고향에 있는 한대의 나무, 한포기의 풀, 한이삭의 곡식이 이전보다 몇갑절 더 소중해보였다. 그런데다가 강량욱선생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부단히 취하였으므로 나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상적으로 애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때 선생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원족이나 수학려행 같은 것을 많이 조직해주었다. 그때 있은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도 황해도 정방산 수학려행이 매우 인상깊다.

해방후 강량욱선생은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서기장과 공화국 부주석으로 일하면서 나와 사업상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창덕학교시절의 수학려행에 대하여, 우리가 본 정방산의 성불사와 남문루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상하군 하였다.

창덕학교시절 쓰시던 방

창덕학교시절의 추억가운데서 또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강량욱선생의 창가수업이다. 창가시간은 우리가 제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기시간의 하나였다.

선생은 전문가들을 무색케 할만한 희한한 고음성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성대를 가지고 선생이 ≪전진가≫나 ≪소년애국가≫와 같은 노래를 부를 때면 온 교실이 숨을 죽이고 그 노래를 감상하군 하였다.

돌이켜보면 선생이 배워준 창가의 선률들이 우리의 가슴에 애국적인 정서를 많이 부어주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그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창덕학교시절에 배운 노래를 종종 부르군 하였다. 그 시절에 배운 노래들은 지금도 가사와 선률이 그대로 고스란히 머리속에 남아있

다.

조국에 돌아와보니 고향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었다.

해마다 봄씨붙임이 시작되면 극빈한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였다. 농사일이 바쁜데다가 농량이 떨어져 물구지, 냉이, 메싹 같은 것을 캐여 끼니보탬을 해야 했다. 장날이면 나물을 팔아 식량을 사려고 시내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들을 도와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봐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점심밥을 싸도 조나 수수, 피로 지은 밥을 싸가지고 다니였다. 그나마도 없어서 점심을 못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칠골이나 만경대에는 집사정이 곤란하여 학교에 못다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였다. 가난때문에 학교문앞에도 못가보고 집에 파묻혀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불쌍해서 견딜수 없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여 방학대 만경대에 가서 야학을 열었다. 그 야학방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불러다놓고 글을 배워주었다. 처음에는 1학년용 ≪조선어독본≫을 가지고 우리 글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학과목을 늘여 력사, 지리, 산수, 노래도 배워주었다. 내 일생에서 처음으로 되는 소박한 계몽활동이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성안에 자주 드나들면서 평양시민들의 생활형편도 만경대나 칠골 사람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양의 인구 10만중에 기를 펴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안되는 일본사람들과 미국사람들뿐이였다. 미국사람들이 평양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신양리일대에 틀고앉아 호의호식을 하였다면 일본사람들은 평양에서 제일 번화한 본정과 황금정일대에 자기네 거주지역을 만들어놓고 풍청거리였다.

청년시절의 강량욱

미국사람들이 사는 ≪양촌≫이나 일본인거주지역에 벽돌집이 늘어나고 상점들이 늘어나고 례배당이 늘어났지만 보통강일대나 빽대거리 같은곳에는 빈민촌이 늘어났다.

지금은 보통강기슭에 천리마거리, 경흥거리, 봉화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이 들어서고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초고층아빠트와 같은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솟아나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지만 내가 창덕학교에 다니던 그때만 해도 거기에는 거적문을 해달고 판자를 모아 지붕을 얹은 움집들이 올망졸망 들어앉아있었다.

내가 조국으로 돌아온 그해는 평양지방에 전염병까지 퍼지어 시민들이 모진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의 피해를 입어 온 도시가 형용하기 어려운 곤란을 당하였다. ≪동아일보≫는 그해 홍수로 인한 참상을 전하면서 평양시내 총호수의 절반에 달하는 1만여호의 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하였다.

지금 보통강광장뒤에 세계에서 제일 큰 105층짜리 류경호텔이 일어서고 있는데 그자리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얼마나 초라한 오두막을 짓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지 새 세대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때 이런 현실을 체험하면서 근로하는 인민이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갈망하게 되었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내가 창덕학교에 다닐 때 일본에서 간또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에 대한 소문이 칠골에까지 날아와 학생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지진을 계기로 조선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한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조작해가지고 일본의 극우익분자들이 군대를 내몰아 조선동포들을 수천명이나 학살하였다는 것이였다.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일본이 입으로는 ≪일시동인≫이나 ≪일선융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지로는 조선사람들을 짐승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후부터 나는 일본순사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만 보아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널판자에 못을 여러대 박아 길바닥에 파묻어놓으면 어떤 자전거든지 영낙없이 다이야가 터지군 하였다.

일제를 증오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상감정은 우리가 만든 음악유희 ≪열세집≫에도 반영되었다. 음악유희 ≪열세집≫은 13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마분지로 만든 열세개도의 지도를 붙여 조선지도를 만드는 춤이다.

1924년 가을철운동회때 이 음악유희를 무대에 올렸는데 공연도중에 순사가 운동장에 나타나 당장 걷어치우라고 야단을 쳤다. 자그마한 운동회를 하나 열려고 해도 경찰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사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순사의 립회가 있어야 하던 세월이였다.

나는 강량욱선생을 찾아가 자기 나라의 산천을 사랑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놈들이 뭐라고 하든지 공연을 계속하자고 주장하였다.

강량욱선생은 다른 교원들과 함께 순사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열세집≫의 공연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우리와 같은 소학생들도 이처럼 강한 애국정신, 반항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가 조국에 나온 그해 여름 평양에서는 양말공장 로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다. 그때 신문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이 비록 기만적인 ≪문화통치≫에 매달리고 있지만 조만간에 3.1인민봉기보다 더 큰 반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창덕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일화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1)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민족적 통일련방국가의 창립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분의 발기에 의해 1984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련합회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과 남, 미국의 3자회담에 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미국정부와 서울당국에 보냈다. 또한 다음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남국회회담을 가지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이남≪국회≫에 보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북남국회회담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얼마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북남국회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의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확고한 립장과 적극적인 노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는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을 념원하시는 그분의 발기에 의해 국회회담제안과 함께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훈련중지에 관한 제안,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고 15만명의 조선인민군병력을 이북의 평화적건설에 참사시키는 중대조치가 취해졌다.

이 모든 제안과 조치는 우리 나라에서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제안들은 다 상대측에서 진실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좋은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들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측이 우리의 제안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인내성있게 기다릴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그분의 이같은 제안들은 미국지배층과 이남≪정권≫의 분렬주의적 립장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가로막히게 되고 그 성사를 이루어내기까지는 간고한 투쟁이 앞에 남아있었다.

그렇기는 했으나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을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며 련방제통일의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의지는 확고하고 결연한 것이였다.

그분께서는 1987년 1월과 1990년 5월에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과 군축을 위한 제안을 밝히시고 조선인민무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이같은 거듭되는 현실적인 제안과 실천적 조치는 그분의 평화애호적인 지향과 뜨거운 통일의지와 민족애를 보여주는 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함께 북남사이의 민적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몸소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송시

그 순간에 벌써

유진상

세인의 충격을 일으키며
몸소 공황에 나오셨던 장군님
사랑의 큰 품에 남측대표들 안아주셨을 때
그 순간에 벌써 그분은
겨레의 심장 깡그리 틀어잡았네

숭고한 의리로 소문도 없이
백화원을 찾으신 장군님
따뜻이 손잡으며 모두를 만나주셨을 때
그 순간에 벌써 그분을
한평생의 친근한 스승으로 모셨네

가슴속의 한가닥 소원마저 해아리신듯
환하신 미소를 보내시던 장군님
다정한 음성으로 세상이치 심어주실 때
그 순간에 벌써 그분을
민중의 다심하신 어버이로 모셨네

통일의 청사진 펼쳐주시며
민중의 내일을 확신하신 장군님
햇빛같은 필체로 공동선언에 서명하셨을 때
그 순간에 벌써 그분은
통일조국의 위대한 태양이 되셨네

흠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영도의 천재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스웨덴조선친선협회와 협회스톡홀름지부,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남부지구 주체사상연구소조의 공동주최로 2월 15일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스웨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베르트 안데르쏜은 연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계승 발전시키시는 수많은 문헌들을 집필하시었다. 평양시를 비롯한 조선에 일떠선 수많은 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은 다 그이의 발기와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건설된 것들이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근로인민대중 속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신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를 끝없이 존경하며 우러러 높이 모시고 있다.

모임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되었다.

한편 2월 14일 부룬디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조선통일지지 부룬디위원회, 부룬디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부줌부라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는 조선통일지지 부룬디위원회 위원장과 우리 나라 대사가 연설하였다.

조선통일지지 부룬디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만민이 시대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는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영도의 천재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인류의 행복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기니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에서도 경축집회가 있었다. 연구소소장은 축하연설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조선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할 수 있는 탁월한 영도자를 모시고 끝없는 영광을 지니었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이론활동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들의 연구소에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높은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더 잘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집회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되었다.

한편 몰타조선친선협회와 몰타레이버당 마르사스록크지부의 공동주최로 19일 지부구락부에서도 경축집회가 있었다.

집회장 정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몰타레이버당 당수 카멜로 미프수드 본니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이께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발전 풍부화시키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영도하심으로써 조선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선군영도자국을 더듬으며(2)

새 세기태양 누리에 비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1월 31일~2월 1일)

2. 위대한 선군정치

이북 민중이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영도밑에 고난의 6년동안 역사의 광풍을 맞받아 뚫고 민족의 존엄과 세계자주위업을 영예롭게 수호한 위대한 기적의 세계사적 승리는 과연 어떻게 이룩됐는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 노정을 돌이켜보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나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고 심중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떠올릴때면 백두산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밑에 고난을 뚫는 앞장에 인민군대가 서고 그 뒤에 민중이 서서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 맞추어 전진해온 군민일심의 정예대오, 당기와 함께 군기를 날리고 마치와 낫과 붓대위에 총대를 세우고 달려온 선군대오의 장엄한 형상이 안겨온다.

고난의 시기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필승의 전략, 만능의 무기로 삼으셨다. 위인의 출현과 함께 시대에 걸맞는 사상과 이념, 정치철학이 태어나는 법이다. 자본의 철쇄를 마스는 마치의 사명감을 선언한 마르크스의 시대나 위대한 사회주의를 탄생시킨 레닌의 시대가 그러했다. 식민지망국으로부터 자주강국으로의 극적인 비약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인간해방, 인간존엄의 불멸의 혁명철학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셨다. 제국주의 침략과 고립압살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세계자주화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선군정치를 더하여 인류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전략적 대강을 완성하셨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명명하신 정의이고 이북에서의 고난의 행군과 함께 나온 새로운 언어, 새로운 조선말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탄생만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20세기 또 하나의 대발견으로 온 세계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난의 6년, 이 역사의 한순간에 인류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세기적 위업이 수행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과 검증의 6년이였다. 인류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론은 그 발견도 세계적 의의를 가질뿐 아니라 그 실천도 오랜 역사적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거대한 노선의 발견과 검증을 여섯해라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다 수행하셨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주체84(1995)년 정월 초하루 아침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께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리신 그 길로 다박솔초소라 불리우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셨다.

이북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가며 어떤 정치를 펼 것인가. 세계가 이북에 초점을 모으고 귀를 간구고 있을 때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첫시작으로 이 다박솔초소를 찾으셨다. 그분의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길이 장군님의 끝없는 전선길로 이어졌으며 그날로부터 그분의 최전방부대 등 인민군시찰소식으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총포성이 울리지 않은 그 나날에 매일같이 뵈온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은 당중앙의 집무실이나 회의장의 연단이 아니라 위장막을 친 최전방지휘소의 작전대앞이나 중대의 막사, 바람 세찬 고지의 초소길에 계시는 그분의 숭엄하고 자애깊은 모습이였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피값을 치루더라도 조국을 지키고 봐야 한다. 나라를 지켜내기만 하면 생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망국노가 되겠는가, 자주적 민중이 되겠는가 오늘 문제는 이렇게 선다.≫

장군님께서는 이런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 부대들을 쉼없이 찾으셨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 민중들이 나토공습의 인간방패로 서야했고 고공 1만2000미터에서 날아오는 폭격기들과 300여킬로미터앞에 있는 적진을 타격할 힘이 없어 조국땅을 내주어야했던 가슴 아픈 비극이 인류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던 시기,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의 열풍은 노예의 운명을 스스로 감수하며 굴욕과 타협으로 숨죽은 듯 누워있는 세계를 정신이 번쩍 들게 뒤흔들어놓았다.

만약 그때 이북 민중이 좌절감에 빠져 목전의 곤란이 두려워 동냥이나 다니고 경제건설에만 치우쳤더라면 제국주의자들은 이북을 몇 번이나 녹여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 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산악처럼 일어섰고 원수들은 이북의 선군강경태세앞에 기절을 했다.

이북 민중이 풍요한 세월에 배불리 먹으며 선군을 했더라면 이렇듯 감회깊이 추억하지 않는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고난의 진두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군민을 승리에로 이끄셨다. 그러니 그분의 노고인들 얼마나 크셨으랴.

장군님께서 그 나날에 인민군부대를 찾아 걸으신 노정만도 14만여리, 지난해만도 3만여리의 노정을 거쳐 130여개 단위의 인민군부대, 구분대를 시찰하셨다. 어느해인가 장군님께서는 국방력강화를 위한 문서에 서명을 하시다가 인민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때에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다고, 난 이런 때가 제일 괴롭다고 말씀하셨다.

한동안 아픈 심정을 달래시던 그분께서는 나직하나 격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의 ***을 부르게 될 때 민중들에게 다 이야기해주자고,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뜨거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에로 질풍노도같이 내닫는 오늘 이북 민중은 장군님의 그 심중의 말씀을 다 알고 그분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야말로 **김정일**장군님의 천재적 예지의 산물, 위대한 심장의 언어, 심장의 불길이였다.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더듬느라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따라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이냐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때 자기의 가슴을 헤치고 거기에서 심장을 꺼내어 머리위로 높이 치켜들었다는 전설의 인간 단코, 그 심장이 태양보다 더 붉게 타고 그 거룩한 심장의 불길로 해서 앞길이 열렸다는 고리끼가 상상했던 그 단코의 전설얘기를 오늘 문화적 형상이 아니라 생동한 현실로 목격한 이북 민중이다.

매일같이 달라지는 초소이고 움직이는 집무실이였던 장군님의 현지시찰은 말 그대로 빨찌산식이였다. 그분께서 입으신 점퍼옷은 백두산야를 종횡무진하시던 빨찌산 중대장의 항일복이였고 그분께서 몰아가신 야전차는 항일의 전구를 질풍쳐 달리던 빨찌산의 준마였으며 그분의 쪽잠과 주먹밥은 빨찌산식 숙영방법이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시는 그분의 강행군 현지지도는 빨찌산식 영도방식이였다.

나는 세 살때부터 군인이였다고 말씀하신 장군님, 4대 적을 한손에 휘어잡고 쥐락펴락하시는 장군님의 그 담대한 배짱과 철의 의지앞에 세계는 장군중의 장군, 천출명장의 위상을 똑똑히 보았다.

선군정치와 같은 그런 세계사적 위업은 누구나 해낼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위천≫, ≪이심위민≫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나라와 민중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애국애족의 화신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다.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에 의해 이북에서는 군사는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인간도, 사회도, 투쟁과 생활도 새롭게 일신한 선군시대라는 완전한 하나의 대지대가 개척되었다.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55년분열의 장벽에 통금을 낸 역사적인 쾌거가 이룩될수 있었으며 북을 적대하던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평양과 수교하는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독창적인 필승불패의 무적의 기치, 창조의 보검이고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높이든 자주강국건설의 최대의 전략적 대강이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부시정권의 거듭된 대북강경발언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온 민족을 격분시키었다. 그런데 오늘 부시는 대북선전포고와 같은 침략적 폭언을 일삼으며 동족불화, 동족대결의 씨를 뿌리는 서울행각까지 벌이려하고 있다.

긴박한 현정세는 우리 민중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반부시반미항전에 용약 분기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부시의 서울행각을 저지파탄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쟁이냐 평화냐, 6.15공동선언이행이냐 6.15공동선언파탄이냐가 결정된다.

평화를 바라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애국민중은 부시의 전쟁행각, 반통일행각을 결사배격하고 그에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각계민중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으로 민족자주를 성취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전위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면한 반부시반미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것이다. (주체91, 2월 8일 서울)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배격하는 각계민중

화제의 초점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7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부시의 한국행각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각계에서 이를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부시의 방한계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이미 보도된 것처럼 부시의 방한날짜는 오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인 20일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정세와 대테러공조방안 등을 중점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시는 방한기간 주한미군기지들도 둘러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사회자 : 지금 각계에서는 부시의 방한***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각계 민중은 부시의 방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정원 : 부시의 방한과 관련해 지금 각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를 비롯한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시위와 집회 등을 잇따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에****한결같이 미국의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하고 있다면서 부시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죠. 특히 부시의 서울행각이 북침전쟁책동을 최종확인하기 위한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극력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고 반대규탄하고 있죠.

사회자 : 그렇군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각계 민중의 목소리가 일률적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시의 방한저의에 대한 각계 민중의 이러한 평가는 이미 부시의 방한준비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윤정원 : 네,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난달 3일 3명의 미국회의원들이 연일 날아들었고 17일에는 ***공화당패거리들이 **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북강경책동에 앞장선 주적론자들이고 반북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한 행태를 봐도 주한미군기지들과 전방군부대들을 찾아다니며 북침전쟁열을 고취했죠. 이 땅의 호전광들과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를 위한 전쟁모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시가 와서 뭐를 하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

사회자 : 그뿐이 아니죠. 부시의 방한에 앞서 미국의 전쟁광신자들로 악명높은 미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미합창의장이 먼저 날아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호전광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시의 방한때 논의될 미사일방어체제 공조문제와 북침전쟁흉계를 미리 짜놓자는데 있다는 건 불보듯 뻔하죠.

윤정원 : 그렇죠. 그리고 부시의 방한이 북침전쟁행각이라는 건 방한을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부시의 호전적인 반북언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부시가 ***아프간전쟁이 종결되고 다음 목표는 이북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해≫선포는 바로 북침전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부시는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에서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비축이니 세계위협이니 뭐니하며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위협행위를 ****지금도 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악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할수 있는거죠.

사회자 : 정말 기절초풍케할 일인데요. 사실 대량살상무기보유와 세계위협으로 말하면 미국에 대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이 근 2만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고 게다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생물무기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계를 돌아치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거침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9.11사건을 구실로 올해 국방비의 400억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할당한데 이어 다음해 국방비를 사상최대규모인 3790달러로 확정하면서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이북의 위협을 여론화하면서 이를 구실로 북침전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 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수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북침전쟁준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윤정원 : 미국이 이북을 공격할 것을 노린 ≪작전계획5027-98≫은 이미 작성이 됐고 한반도유사시에 69만명의 침략무력과 각종 함선 150여척, ≪에프18≫ 전투폭격기를 비롯한 1600여대의 ***전개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함정을 비롯한 ****했고 또 9월 11일사건을 구실로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함선들이 기어들었어요.

사회자 : 제가 알고 있기도 미국의 군수업체들에서도 북침전쟁을 위한 초강력지하**무기개발 등 최첨단무기들이 다량생산에 들어갔고 사전거리가 300킬로미터인 신형미사일까지 이 땅에 다량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주변의 미항공모함군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을 연일 벌여놓고 있는 것을 비롯해 그 사실들을 열거하면 끝이 없죠.

이같은 사실들을 놓고 볼때 부시의 이번 방한이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고 북침공격을 **하기 위한 전쟁행각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시의 이번 방한이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각계의 목소리 역시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원 : 물론 그렇죠. 전쟁책동과 남북의 화해가 양립될수 없다는 건 자명한 것 아닙니까. *****명백한 것***부시행정부 출범후 ***있지도 않은 이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말도 되지 않는 상용무기 감축문제까지 들고나오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남북간의 대결을 조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을 했습니까. 더욱이 9.11사건을 구실로 이 땅에 북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게 하고 무력증강과 각종 전쟁연습을 비롯한 전쟁책동으로 정세를 격화시켜 제4차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을 무산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남북관계진전의 조짐이 보이자 또다시 대북초강경망발을 ****또다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부시가 전쟁사환꾼들을 끌고 이 땅에 날아들어 북침전쟁모의를 벌이고 6.15공동선언이행***한반도정세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걸 ***명백하죠.

사회자 : 사실 6.15공동선언이행차단은 결국 남북대결과 전쟁을 유발시킬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고 보면 부시의 이번 방한은 *****이 아니고 호전광의 전쟁행각이라고 해야하겠죠. 부시의 북침전쟁책동은 한반도전역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것으로써 결국 이 땅에 대한 침략전쟁행위죠. 이건 온 민족을 공멸의 위기에 몰아넣는 행위로써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윤정원 : 그래서 각계 민중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과 부시의 방한을 ***우리 민족앞에 초래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고 부시의 방한저지투쟁을 비롯한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7일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
통일연대소속 김영찬씨

통일연대소속 김영찬씨가 2월 5일 시내 모처에서 열린 정세포럼에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정세와 미국≫이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북을 악의 서열에 세워 비판한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발언을 전쟁광신자의 궤변으로 강도높게 단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나날이 긴장격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아무리 이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패권주의의 더러운 야심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이북은 인민군이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군민이 하나로 똘똘뭉쳐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져놓았다.≫

김씨는 계속해 ≪이북이 그 어떤 침략세력의 위협이나 도전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위력한 나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된 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국사중의 제1국사로 거머쥐시고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는데 있다.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담력, 천변만화하는 지략을 지니시고 그 어떤 대적도 눈아래로 굽어보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펴시는한 이북은 미국의 그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나라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발언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전남통일연대는 4일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시가 방한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군용기구매를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00여개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위원회도 6일 명동성당에서 부시방한반대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18일에는 학계와 문화계 등 5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시국성명발표와 평화대행진을 벌이는 한편 20일에는 부시방한규탄범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통일단체들도 미대사관앞에서의 1인시위와 부시방한반대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연대사업부 간사는 부시발언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부시의 발언을 기회로 또다시 반북정서를 재생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7일

김정일총비서께 축전 꾸바국가리사회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내각 수상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5일 축전을 보내여 왔다.

축전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나는 당신의 탄생 60돐을 경축하는 이 기회에 꾸바인민과 공산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앞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실것과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제국주의렬강들의 적대행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나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선인민을 령도하는 길에서 바치시는 헌신적인 로고는 우리의 감탄과 존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뜻 깊은 계기에 우리 인민들과 당과 정부들사이의 형제적뉴대와 협조를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확언합니다.

2.16경축 국가도서전람회개막

2.16경축 국가도서전람회가 7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발행한 출판물들가운데서 2만 1, 000여종에 3만 6, 000여부의 도서, 잡지들이 전시되였다.

전람회장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혁명과 건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집대성하여 발표하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1993.3.1),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10.10)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위대성도서, 당정책해설도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도서들이 전시되여 있다.

그리고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민족고전도서들과 과학기술, 문예, 청소년학생 도서, 잡지들이 전시되여 있다.

북남관계전진과 통일운동활성화는 시대의 요구

얼마전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것을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로 삼고 투쟁해 나갈것을 해내외의 동포들에게 호소하였다.

오늘호 ≪로동신문≫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관계는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사이의 관계이며 함께 손잡고 통일로 나가야 할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 투철한 각오와 립장을 가질때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북남관계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화는 철저히 북남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하고 그것을 리행하는 대화이다.

≪우리 민족끼리≫, 바로 이 정신이야말로 북남대화를 성공과 발전에로 이끌어 악화되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합과 자주통일을 안아 오게 하는 확고부동한 열쇠이다.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애국열의를 총 발동하여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는 그 주인인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의 힘과 의지에 달려 있다.

온 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을 가림없이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의 생활력이 과시되여 온 불멸의 로정

7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력사적로작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독창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발표(1962.2.7) 40돐에 즈음하여 기념론설을 실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신 독창적인 대중령도에 관한 사상이며 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방법은 우가 아래를 도와 주며 웃사람이 아래에 내려가 제기된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워 주는 우월한 사업방법이며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본질과 내용,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의 대중령도방법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 대하여 밝히시고 그를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풍모는 끊임 없는 현지지도로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들어 가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데서 과시되고 있다.

언제나 사상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시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시는 혁명령도방법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강령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인민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혁명적인 투쟁구호를 제시하신것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필승의 신념을 심어 주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 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혁명적공세와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사수호할수 있은 것도,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올수 있은것도 언제나 사상사업을 앞세우고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혁명령도방법을 일관하게 구현하여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중령도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희세의 정치실력가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미국 강경보수세력들의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폭언

조선중앙통신 론평

미국대통령 부쉬의 호전적인 ≪년두교서≫발표에 이어 지금 미행정부와 군부우두머리들속에서 사상 류례 없는 전쟁폭언들이 거침없이 튀여 나오고 있다.

국무장관 포웰, 국방장관 람스펠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블래어 등이 련일 그 누구의 ≪대량파괴무기위협≫과 관련한 기만선전과 호전적인 ≪경고≫를 일삼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부쉬행정부관리들의 이러한 언동은 국제사회가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평하는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테로전쟁≫으로 극도로 오만해 진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의 위험천만한 전쟁광기를 반영하는것이다.

미국은 수십년 내전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승리≫와 그 요인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하면서 마치도 세계에는 미국이라는 ≪유일초대국≫밖에는 주권국가들이 존재하지 않는것처럼 망상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아프가니스탄전쟁말기부터 미국이 ≪확대전쟁≫을 운운하며 일부 주권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문제를 떠들어 왔던 사실은 부쉬행정부의 전략적목적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확립－세계제패≫에 있다는것을 이미부터 확증해 주고 있었다.

부쉬의 ≪악의 축≫을 줴친 극단한 망발과 부쉬의 주위에서 그를 전쟁에로 부추기고 있는 랭전보수강경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는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 인류의 평화와 안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등을 유린하며 새 세기의 미래를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이번에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폭언으로 감히 우리를 위협해 나섰고 지금에 와서 ≪선제공격≫설까지 떠들고 있는 조건에서 자주성과 존엄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과 자위적혁명무력은 자기의 신성한 자주적권리, 자위를 위한 선택의 권리로 도발자 침략자들을 징벌할 철의 의지를 천백배로 가다듬고 있다.

미국이 그 무슨 선과 악에 대하여 시비를 가르고 그에 옳게 대처하려 한다면 력사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털어 놓고 말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주와 평화, 친선을 지향하는 나라들과 인민, 진정한 국제여론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침략과 전쟁에 미쳐 날뛰는 ≪악마의 제국≫으로 단죄되여 왔다.

그리고 현대테로공격의 화살이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는것도 부쉬행정부의 무분별한 강권정책에 있다는것을 현실은 웅변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지난 조선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력사에 남긴 저들의 수치스러운 교훈을 망각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자(1)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7일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주체조선의 확고부동한 목표이며 의지이다.

20세기의 준엄했던 혁명의 년대기들을 백승으로 빛내여 온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 진군길우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다.

자기 령도자의 뜻과 의지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전당, 전군, 전민의 철통 같은 일심단결이 있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은 반드시 현실로 꽃 펴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의 가장 위력한 무기입니다.≫

단결의 힘은 번영하는 불패의 강국건설의 최대의 무기이다.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 방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대국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자기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으로 굳게 단합된 나라가 바로 대국이며 강국이다.력사와 현실은 아무리 방대한 경제력이나 지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민족의 단결된 힘이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혁명은 수령과 전사들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개척된 혁명이며 우리 조국은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떠세운 주체의 강국이다.사회주의 조선의 건설력사이자 수령과 인민의 단결의 력사이다.

광복후 령이나 다름 없는 상태에서 건국의 기초를 다지게 한 최대의 밑천도 단결이였고 전후의 빈터우에서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운 힘의 원천도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이였다.조국번영의 기적을 창조한 천리마대진군은 수령과 인민의 단결의 대진군이였다.

1970년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환희와 격정은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펼친 사회주의대건설의 기적을 안아 왔다.

일심단결만 있으면 제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울수 있고 령토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국으로 될수 있다는것,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창조와 변혁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겨 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간직한 철의 신념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힘 있게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그 준엄한 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 드신것은 일심단결된 주체조선의 담대한 배짱과 기개,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으로 된다.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전당, 전군, 전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한목숨 바쳐 옹위하는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우리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불사신마냥 일떠서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과감히 열어 제낄수 있었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억만금의 재부와도

절대로 바꿀수 없는 **김일성**민족의 최강의 무기이다.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하루빨리 오르려는 것은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 같은 신념이며 맹세이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게 될 21세기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주체조선의 최전성기로 길이 빛날 21세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 전진하는 **김정일**세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새기신 조국번영의 원대한 구상, 강국건설의 맹세를 현실로 꽃 피우는 장엄한 력사적시대가 우리앞에 펼쳐 지고 있다.필승의 지략과 무한한 열정으로 수십성상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험은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로 되고 있다.위대한 정치원로이신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이 전면적인 실현단계에 들어 선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최고의 높이에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심단결은 제국주의도전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가며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려는것은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의지이다.

김정일강성대국은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의 결정체이며 력사에 류례 없는 자주의 대국이다.세계를 당당히 굽어 보는 주체강국의 기상,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있다.일심단결이자 최대의 국력이다.

오늘 오만해 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압력과 공갈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사수호하고 **김일성**조선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쳐 갈것이다.

일심단결은 모든것이 흥하는 인민의 락원을 앞당겨 오는 추동력이다.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을 남 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군대와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심장으로 받드는데 이 땅우에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이 있다.

단결은 곧 비약이다.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혁명군대의 투지와 본때가 전 인민적인 투쟁기풍으로 전환될 때 경제건설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될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66회

학사 김장호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7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주체81 1992년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으시고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앙과 전국각지에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전체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접수토의 사업을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0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가장 성대하고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도록 하시고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의 편지접수토의사업이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서 진행되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서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 숭배심을 혁명적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계기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한편 세계 인민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사적지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현지지도사적비와 표식비를 건립하며 수령님의 친필글발과 친필명제비를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체81 1992년 4월 12일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혁명사적관을 개관하였으며 주체81 1992년 4월 5일 금강산과 묘향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쓰신

≪금강산. 김일성≫
≪묘향산의 천하제일명산. 김일성≫

이라는 친필글 제막모임이 진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수록한 도서들을 수많이 출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전집≫과 특히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기념비적 도서로 출판하게 하시고 ≪80평생 인민을 위하여≫와 ≪인민들 속에서≫를 비롯한 부문별 영도사와 덕성도서들을 출판하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구호문헌학습과 혁명전적지, 사적지 참관을 통한 위대성 교양도강화하게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고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혁명적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1 1992년 1월 1일 말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80 1991년 11월 13일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주체81 1992년 3월 18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문≫ 등을 내려 보내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생산과 건설에서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수령님의 탄생일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불패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기념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 기념행사들을 가장 성대하게 진행하는 것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함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는 승리자의 대 정치축전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기념행사들을 가장 성대하게 진행하여야 이 과정에 우리 인민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을 더욱 높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기념행사들을 전례없이 성대하고 뜻깊게 준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많은 외국의 축하사절들이 참가한 세계 공동의 대축전으로 장식되였습니다. 경축행사에는 7개나라 국가수반과 23개의 정부대표단, 60여명의 당수 및 부당수들이 망라된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하여 130여개 나라에서 온 420여개의 대표단에 2,000여명의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의 당수, 부당수들이 이끄는 당 대표단들이 전례없이 많이 참가한 것은 경축행사의 정치적 의의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80돐 기념행사들을 전례없이 성대히 진행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이 끝임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온 세계에 과시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축원속에서 전례없는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으로 진행되었는데 40여개 나라의 60여개 경축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여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고 세계 여러나라의 정계, 사회계 등 각계층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과 함께 축전,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새 출로를 위한 역량당≫ 총비서는 은으로 만든 만경대 생가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면서 우리 일꾼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자주위업에 이바지 한 **김일성**동지의 공헌은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은으로 만경대 생가를 형상하여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선물에는 만민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모든 마음이 은처럼 깨끗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라고 뜨겁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몽골의 아르바이헤르시오의 국가모범 제1유치원을 **김일성**유치원으로, 뻬에르의 르마시 제6152학교 5학년 1반을 **김일성**학급으로, 뻬에르의 우랍쵸대학을 공업기술학부 회관을 **김일성**회관으로, 가이아나의 코리보톤시에 있는 가장 우수한 체육단을 **김일성** 쿠리케트팀으로 명명하는 행사들이 해당나라들에게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총 행사 건수는 백수십여개의 나라에서 2,500여회나 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나라 수령의 탄생일을 맞으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처럼 많은 행사를 진행한 실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과 출판보도선전 활동이 광범히 벌어졌습니다.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잡지, 뷸레찐들이 많이 출판보급되였고 일본 도쿄에서는 주체81 1992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현시대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그리고 인디아에서는 주체81 1992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세계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 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된 것을 비롯하여 4월의 명절기간에만도 50여개 나라에서 토론회들이 진행되였습니다. 또한 4월의 명절을 맞으며 나이지리아, 우간다, 르완다, 민주콩고. 네팔의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가 새로 결성됨으로써 30여개 나라에서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1,000여개의 주체사상 연구조직들이 국제 및 지역기구와 전국위원회의 지도밑에 정연한 보급체계를 갖추고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가게 되였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통신을 통하여 기념사설, 기념논설, 기념특집, 축하방송, 특별방영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한 보도선전활동이 활발히 진행 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 80돐을 맞으시며 몸소 집필하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 혁명편 1, 2≫가 출판보급 되자마자 세계 150여개 나라의 신문, 방송, 통신들에 소개되여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와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인류역사상 최대의 경사로,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으로 가장 성대하고 뜻깊게 기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뜻깊게 경축한 것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와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

참으로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행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밑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 나갈 때 사회주의 위업은 온갖 시련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진리를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면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시 정권의 오만성과 호전성

조국평화통일협회논평 2002년 2월 2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지난 1월 30일의 ≪연두교서≫에서 그 호전성과 오만성을 다시 드러내놓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부시는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을 ≪악의 축≫이라고 미국의 역대 어느 행정부도 써본 일이 없는 도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걸고 들었다.

이로써 남측의 정계나 언론들이 말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북미관계 완화≫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으며 미국이 말하는 북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니 ≪(한국의)대북정책 지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가 명백해졌다.

북에서는 이번 부시 발언을 자기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으며, 이란, 이라크도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정부들도 부시의 비정상적인 강경발언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묻노니, 억지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고 양민 대량살상을 감행한 미국의 행위는 국가적 테러가 아니라는 말인가?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를 미국의 ≪벗≫과 ≪적≫으로 갈라 놓으려는 부시 정권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그들의 침략성과 횡포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계는 부시 정권이야말로 테러의 근원이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라고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경제의 침체와 엔론사 비리 등에 대한 국내의 의혹과 불만을 무마하고 MD 구축을 비롯한 군비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양이 기름 종지 노리듯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외의 지역들에 확대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물론 미국내에서조차 ≪제 애비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오늘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남쪽의 친미사대인물 이회창이 당수로 있는 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남북관계 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 정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2년전의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한(조선)반도의 화해·통일기운을 현재의 경색국면에로 몰아 넣은 책임을 시인하고 하루빨리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커뮈니케 정신에 되돌아서야 한다. 이 공동커뮈니케로 말하면 당파에 관계 없는 국가간의 약속으로서, 아무리 부시 정권이 선임자와의 연속성을 부인해도 그 이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이 종전의 대북정책이 파탄된 결과로 선택한 이길 외에 대안이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또한 부시 정권에게는 지금과 같이 그릇된 대북 강경책을 언제까지나 계속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제네바 조미기본합의문에 명기된 2003년의 기한은 시시각각으로 다가 오고 있다.

7천만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오늘도 내일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전진을 개시했으며 그 누구도 이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이같은 자주통일 지향을 존중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인가, 아니면 ≪독선적인 불량국가≫에다가 우리 민족의 적인 ≪반통일세력의 원흉≫이라는 감투까지 써서 심대한 타격을 받겠는가. 부시 정권에게는 이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왕노릇은 할 수 없는 법이다.

부시 정권은 사태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세상이 결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쟁광 부시는 더이상 한반도를 위협하지 말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 지하은희(전 여성연합 대표)등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고위관료들의 계속되는 대북 강경발언으로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경색됐다고 보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일념하에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호전적인 발언 및 정책의 중단 △북측의 적극적 대화 움직임 △여야정파 의견차이를 뛰어넘는 평화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언이 ≪선언≫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남주 상임공동대표는 ≪이는 국·내외 모두에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미대사관에 이 성명서를 영문화하여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성명서의 발표는 전세계에 한반도 시민단체의 평화에 대한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미국내의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최열 공동대표도 ≪부시 미대통령의 연두교서 이후 북측에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고 전하며 평화를 위한 국민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부시 방한 이전 사회 각계인사들이 2·18 선언과 함께 각종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3·1절에는 ≪한반도 평화선언≫의 의지를 미국에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북대사, 북-미관계 미국 손에

박길연(朴吉淵)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7일 북한과 미국간 대화 또는 적대 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이날 AP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이남의 정책이 미국의 의해 영향을 받는한 한반도 통일은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아주 적대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군사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 군과 인민은 똑같은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사는 북정부가 미국과 어떤 대화라도 재개하는데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 협상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이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갖게 된 것이냐고 묻자 ≪적대적이거나 고운 말과 행동은 조선으로부터 유사한 대답을 들을 것≫이라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사는 북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북외교부의 반응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의 가면까지도 벗어던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대사는 이어 ≪이남 당국의 입장이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남의 정책이 미국의 의해 영향을 받는 한 한반도 통일은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 그는 6.15 공동 선언의 핵심은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공동 노력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6.15 선언을 성실히 수행하고 존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적대 정책이나 분위기가 개입된다면 남북한에 어떤 대화나 접촉이 가능하고 실현되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바로 ≪악의 축≫

민간법정 추진위, 조선일보 규탄대회

지난달 30일에 열렸던 ≪조선일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민간법정) 판결문이 조선일보사에 던져졌다.

8일 오후 1시 조선일보사 옆에서는 통일연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주최로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조선일보에 대한 민간법정 판결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판결문을 조선일보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인사말을 통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는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는 일본 천황의 ≪臣子≫를 자처하고 독립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며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행위를 규탄했다.

또, 오종렬 상임의장은 ≪독재정권에 아부굴종하고, 겨레의 통일행보에 항상 해꼬지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역사앞에 단죄하는데 서울시민들이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이 후 규탄대회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에 대한 간략한 경과보고 후 참가자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규탄발언으로 이어졌다.

먼저,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사무실이 프레스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부시의 대북강경발언 이후 미대사관과 조선일보가 근처에 있어 미사일이 혹시 이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김동민 상임대표는 또 ≪우리나라에도 악의 축이 있는데, 바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최근의 동아일보가 그것이고, 우두머리가 바로 조선일보다≫며 ≪이 악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조선일보 반대 투쟁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통일연대 강형구 조직국장은 ≪같은 민족의 큰 행사를 축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조선일보는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흠집내기에 여념없다≫며 ≪월드컵과 아리랑 모두 통일에 기여하는 큰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불교통일연대 진관 스님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신발을 다 벗겨서 취재를 못하게 해야한다≫, ≪관심법으로 내가 보니 부시가 비행기 타는 순간 비행기 바퀴가 빠지더라≫ 등의 이야기로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규탄대회는 30일 있었던 조선일보 민간법정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이났고, 참가자들은 판결문을 전달하기 위해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으로 향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대표단 5명만이 조선일보사로 갈 수 있었다.

대표단은 판결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조선일보측의 거부로 판결문을 조선일보사 출입문안으로 던져넣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날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조선일보 민간법정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기소된 보도기사에 대한 사죄와 관련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소유와 경영분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08

크루그만, 부시의 국방비 증액 맹공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이 최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그는 지난 주 엔론게이트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부시행정부를 비판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경제 실정(失政)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크루그만 교수는 ≪부시의 공격적 회계법≫이라는 지난 5일자 칼럼에서 부시의 새해 예산안은 엔론식 회계법에 의한 것이라고 비꼬면서 9.11 테러는 ≪과거 부시의 (경제정책) 잘못을 덮는 황금의 기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만 교수는 ≪부시행정부는 테러위협을 빌미로 엄청난 국방예산 지출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을 사기 위해 빵을 포기할 수 있다면, 호경기 시절에 계획됐던 대규모 감세도 경기가 나빠진 지금에는 재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군비 증강이 (미국에 대한) 실제 위협과는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만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모토는 ≪모든 방위산업체를 먹여 살려라≫로 정해진 것 같다며 부시 행정부의 주장대로 테러와의 전쟁이 중요한 임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예산에 관한 한 경제 실정을 호도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인규기자
프레시안 2002/02/08

세계가 부쉬폭언을 비난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대통령 부쉬가 지난 1월 30일 《年頭敎書》라는데서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락인찍은데 대하여 일제히 비난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로씨야 외무상은 2월 1일 도꾜에서 가진 로씨야기자단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테로전쟁》이 다른 나라들에 확대되지 말아야 하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것이 특정한 국가와 정부를 겨냥하여 저들의 어떤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는데 리용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은 2일 뮨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이 테로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자료도 없다고 하였다.

도이췰란드 국방상은 2월 2일 미국이 당면하여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은것과 관련하여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군사계획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뉴욕에서의 세계경제연단 년차총회에 참가한 나토사무총장은 1월 31일 기자단에 《악의 축》에 대한 부쉬대통령의 연설에 우려를 표시하고 조선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테로와 련결시킬 근거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란최고지도자는 1월 31일 라지오방송을 통하여 부쉬를 《인간의 피에 주린자》라고 락인찍고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사는 악마국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라크 부대통령은 부쉬연설을 두고 《얼빠진 소리》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구상의 유일한 악》이라고 불렀다.

세계사회연단 제2차 년례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부쉬의 《악의 축》발언을 비난하고 전쟁으로는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2002/02/08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창립

≪금강산을 사랑하는 일은 이 땅의 평화를 펴오는 길이다≫

7일 ≪금상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이하 금강산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정관과 사업계획 채택, 임원선출을 진행했다.

박인환 상임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심의섭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실련 통일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티즌 1034명 중 금강산관광이 필요하다는데 75%가 찬성하고 정부지원에 74.7%가 찬성했다≫고 밝히고 ≪금강산 관광을 금강산 순례로 승격시켜야≫한다며 ≪통일의 물꼬, 세계 평화의 근원지 금강산 관광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고문으로 선출된 김성훈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과 한반도, 남북의 운명을 외세에 맡길 수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금강산 연대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이며, 진정한 애국주의자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선출 인사말을 통해 ≪부시 발언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한반도 민초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치지도자들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언행을 했는지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국 상임집행위원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금강산 사랑 우체국(가칭) 설립을 통해 실향민과 일반국민이 편지와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강산 복권 판매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강산 평화관광 사절단 북한방문 제안과 오는 23일 진행될 제2회 금강산평화마라톤 등 금강산 평화문화 사업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한명수(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심의섭(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이장희(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씨가 선출되었고, 상임집행위원장에 김규철(시민사회아카데미 남북포럼 대표)씨가 공동집행위원장에 이창걸, 최재일, 변진흥, 김규철씨가 선출되었다.

그 동안 준비위원회 형태로 활동해온 금강산연대는 경실련 통일협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노총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금강산연대 창립 총회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전국 대학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 <금강산 관광사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등의 과반학생회,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 7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은 체험을 통해 ≪통일≫을 공부하고 대학생들의 역할을 모색하는데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계획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부여하기보다 순수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계획에 ≪대학생 관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 시켜줄 것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최소 200개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 학생들의 금강산 관광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정현진씨는 ≪아직 방학중이라 많은 학생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수학여행이나 모꼬지(MT)를 금강산으로 간다면 좀 더 의미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다≫고 소개하고 ≪새내기 금강산 관광단을 꾸리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2002/02/07

금강산 모꼬지, 개강총회때 첫 안건으로

대학 과 · 반학생회 · 동아리 회장단, 사업계획 발표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인 금강산 관광을 살리는 ≪통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금강산 관광 캠페인이 자칫 재벌기업을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욱(연세대 동아리연합회 정책국장)양의 대답이다.

7일(목)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금강산관광 사업≫ 발표 기자회견장 나온 대학 과 학생회장 · 동아리 대표들은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대학생들이 직접 통일을 체험하고 오겠습니다≫라며 금강산 모꼬지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지은(연세대 공대 사회과학 동아리 회장)양은 정부에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을 지원하기로 한 지원대책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에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는 시각을 교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국 200여개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 학생들의 금강산 관광 실현 △금강산 관광을 과학생회 개강 총회 안건으로 상정 등을 이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전국 대학 과 · 반 학생회 · 동아리 대표자 일동 명의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총련과의 연계여부≫, ≪일부운동권 학생들만의 생각≫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들과 학생들과 오고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일부 운동권 학생들만의 사업은 아니냐?

◎금강산 사업은 정치나 이념을 떠나 같은 민족의 대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통일이 그다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 주변의 학우들은 대부분 금강산을 가고 싶어 한다

○한총련 차원의 사업이냐?

◎이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그야말로 과학생회, 동아리대표자들이다. 아직 한총련차원에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평화통일 사업이고, 대학생들이 금강산 관광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생회나 동아리 대표자들이 먼저 나선것이다. 이후 한총련 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전국의 수많은 과학생회와 동아리, 학회등의 대학생 풀뿌리 단체들이 금강산 ≪모꼬지≫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단지, 우리들의 이런 요구와 활동을 한총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라고 또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이 ≪MT≫를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 아니냐?

◎사실 금강산으로 ≪모꼬지≫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수학여행 지원이 대학생까지 확대되길 바란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그만큼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체험학습을 하는것, 북녘땅을 밟는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과와 동아리들이 ≪금강산 모꼬지≫를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 교류도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아직 북녘대학생들과의 교류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통일문제나 민족문제에 관심이 부족한 학우들까지 포함한 되도록 많은 대학생들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 ≪통일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김장효숙/김성현 기자
유뉴스 2002/02/08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2001년 9월 18일 작성

차례

▶ (1) 조 · 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수립이 가지는 의의

나는 2001년 9월 22일과 23일 충청북도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대회≫에 특별강연자로 초청을 받고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글은 그 대회의 특별강연을 위해 작성한 원고 가운데 일부를 옮겨 실은 것이다.

나는 그 대회에서 강연하기 위하여 9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이른바 ≪입국금지자≫로 처리되어 입국하지 못하고 말았다. 내가 전국연합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국가정보원이다. 나는 남(한국)의 정보기관 때문에 198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1994년에 조국의 남녘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뒤로 지난 7년 동안 남(한국)의 정보기관과 경찰의 검색, 감시, 미행, 도청을 당하면서도 여러 차례 조국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말았다.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일했던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심장 속에 간직했던 간절한 염원은 꿈에도 그리던 조국땅을 다시 밟아보는 것이었다. 그 소박한 염원은 남(한국) 정보기관의 난폭한 입국금지조치에 의해 산산이 부셔졌고, 그들의 육신은 남의 나라 하늘 아래 낯선 흙 속에 묻히고 말았다. 오늘 그들의 사상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조국이 있는 하늘가를 바라보며 ≪입국금지자≫로서 겪어야 하는 불행을 견디고 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본국동포들의 해외방문권을 박탈하는 한편, 우리 해외동포들에게서는 조국방문권을 박탈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에게서 조국방문권을 빼앗는 것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자식의 발걸음을 가로막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조국의 남녘땅을 밟을 수 없게 되겠지만, 내가 쓰는 글들은 저들의 방해장벽을 뚫고 조국의 남녘땅 곳곳에 퍼져갈 것이다.

➡

광고

PDF 총서

21세기 태양

3 교시

맹세
4 조선아 너를 빛내리

노작
6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0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대가
18 2월의 선언
22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심화발전
33 사상론과 수령론

세계적 철학가
40 온 세계의 추앙

사전
44 주체철학
49 철학

구국전선 /구국의 소리
54 사상계의 거장
55 새 세기를 주도할 **김정일** 사상
56 21세기를 조명해 본다
58 유명한 철학가
59 **김정일** 영수님께서 정식화하신 시대의 지도사상,**김일성** 주의

조선중앙통신
60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지
61 세계적판도에서 **김정일** 로작연구보급
62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한 불멸의 업적
63 총비서로작을 세계적판도에서 출판보급
64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이 편지
66 **김정일**총비서의 5년간 사상리론활동에 언급
67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회의참가자들이 편지
68 ≪**김정일** 선집≫제14권 출판
68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사상리론가
69 걸출한 사상리론가
70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지
70 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71 **김정일**총비서의 로작 530여건 출판
72 위대한 사상리론가
72 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73 **김정일**총비서의 로작을 탐독하여야 한다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PDF편집물 21세기 태양 총서.
인터넷 구국전선(ndfsk.dyn.to)과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 (www.nadrk.org),
민주노동당 기타자료실 (www.kdlp.org)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조・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북(조선)을 고립・봉쇄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조・미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이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을 중심으로 삼고 조・미 관계를 인식하려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폐쇄국가론≫을 용인하는 오류며, 다른 하나는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곧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맞서서 반제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만일 ≪폐쇄국가론≫을 용인하게 되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이 가하는 고립・봉쇄의 일방적 공세를 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제국주의세력의 고립・봉쇄 속에 갇혀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정세인식을 패배주의라는 함정으로 끌어간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조・미 관계의 본질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보루≫로 자기의 존재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 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집중공세에 단독으로 맞서 투쟁하여왔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에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던 이른바 ≪북한 붕괴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새로 출현한 이른바 ≪북한 변화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조・미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봉쇄・말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제국주의 승리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미 관계에서 대결의 성격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상전이라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상전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와 ≪세계화 전략≫에 기초한 지배주의의 대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조・미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민족민주전선의 관점은, 조・미 대결의 성격을 민족 대 외세의 대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상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반외세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 다르다.

2) 조・미 관계에서 투쟁의 양상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활적인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군사력, 정치외교력, 국가적 조직력, 경제력을 총동원한 투쟁이었다.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집중공세에 맞서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했던 북(조선)은 자기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반제혁명의 결사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긴장된 전투상황 속에서 북(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행하는 전략은 반제혁명투쟁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조선)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은 반제혁명의 승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반제혁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북(조선)의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게 되며, 북(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미 관계 10년을 돌이켜 보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선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이 정치적 합의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대결과 투쟁이 남긴 결과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는 한결같이 두 나라의 해묵은,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미 관계는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가 조・미 관계를 냉각국면으로 끌어가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 관계의 변동방향은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라있으며 그 움직임은 비록 전진속도의 증감이라는 차이는 보일 수 있어도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나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내일 계속됩니다.)